

정치적 생존 vs 가자전쟁 휴전...네타냐후 선택은

미국 등 휴전안 수용 압박...이 극우파, 종전 수용시 연정 탈퇴 경고 야권, 전후 계획 표명 촉구도...이-하마스, 종전·철군 입장차 계속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을 둘러싸고 휴전과 전후 계획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라는 대내외 압박이 커지면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또 한 번 중대 선택의 갈림길에 섰다.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1일(현지시간)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이 같은 압박이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그 결정은 그의 정치 인생과 전쟁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먼저 대외적으로는 미국이 하마스는 물론 이스라엘을 상대로 3단계 휴전안 수용을 거듭 압박하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스라엘 텔아비브

를 방문해 네타냐후 총리를 만난 뒤 네타냐후 총리에게서 휴전안을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재차 받았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어젯밤 네타냐후 총리와 만났고 휴전 제안 준수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이 언급한 휴전안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이스라엘이 제안했다며 공개한 3단계 휴전 방안이다.

휴전안은 ▲6주간의 완전한 정전과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내 인구 밀집 지역 철수 및 일부 인질 교환 ▲모든 생존 인질 교환과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철수 등 영구적 적대행위 중단 ▲가자지구 재건 시작과 사망한 인질 시신 송환 등 3단계로 구성

됐다.

전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서는 미국이 주도한 휴전안 지지 결의안이 채택됐고 하마스는 성명을 통해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영구적 종전의 시기와 방식 등을 놓고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여전히 다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마스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과 미국에서 제시한 휴전-인질 석방안에 대한 답변을 중재국인 이집트와 카타르에 전달했다고 밝히고 긍정적으로 합의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를 협상의 순환 조점으로 해석하기에는 지나치게 성급하다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하마스는 합의 조건으로 이스라엘 측에서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해온 종전과 이스라엘군 철군 등을 포기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하마스 측은 또 이번에 답변을 전달하면서 기존 휴전안의 수정안을 제안했으며, 이는 합의에 또 다

른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하마스는 수정안에서 단기 휴전뿐 아니라 영구 휴전과 이스라엘군의 완전한 철수에 대한 확실한 시간표 등을 요구했다고 익명의 한 당국자가 말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격퇴와 인질 전원 석방, 가자지구발 안보 위협 해소 등 전쟁 목표 달성 없이 종전과 이스라엘 철군이라는 핵심 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연립정부의 극우파들은 전쟁을 끝내는 합의를 수용할 경우 연정에서 나가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이 경우 연정이 붕괴하고 네타냐후 총리는 축출될 수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또 자국 내에서 전후 가자지구 통치 계획을 밝히려는 압박을 받고 있다.

이스라엘 전신내각에 참여하고 있는 요아브 갈란트 국방부 장관과 야권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이 큰

비용이 드는 군사 점령을 하거나 하마스가 다시 통치하지 않도록 가자지구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계획을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연정 극우파들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점령해야 하며 유대인들을 가자지구에 이주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스라엘 북부 국경에서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 교전이 이어지면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도 네타냐후 총리의 선택을 압박하는 요인이다.

WSJ은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에서 벌이고 있는 군사 작전이 수주 내에 끝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네타냐후 총리가 향후 계획을 결정해야 할 순간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스라엘군 가자지구 사단 지휘관을 지낸 이스라엘 지브리는 "결정할 때"라면서 "네타냐후는 도망칠 수도, 미룰 수도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덴기열 '불임 모기'로 차단 인니, 볼바키아 감염 모기 풀기로

인도네시아에서 덴기열 환자가 많이 늘어나자 수도 자카르타에 일명 '불임 모기'로 불리는 볼바키아(Wolbachia) 박테리아 감염 모기를 대거 방사하기로 했다.

12일(현지시간) 자카르타포스트 등에 따르면 아니 루스피타와티 자카르타 보건청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실험실에서 사육한 볼바키아 모기를 서부 자카르타 캄방안 지역 등에 시범 방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날짜나 방사 규모 등은 밝히지 않았다.

볼바키아 박테리아는 자연 박테리아로 덴기열이나 지카, 치쿤구니아 바이러스, 말라리아 등과 경쟁관계에서 이들 바이러스가 잘 옮기지 않도록 차단하는 효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볼바키아 박테리아에 감염된 수컷 모기와 그렇지 않은 암컷 모기가 만나 짝짓기를 하면 알을 낳아도 부화하지 않고, 볼바키아 박테리아에 감염된 암컷 모기가 알을 낳으면 태어난 모기는 볼바키아 박테리아에 감염된다. 중국에는 볼바키아 박테리아에 감염된 모기만 남게 된다.

자카르타 정부는 이전에도 볼바키아 모기 방사를 검토한 적이 있다.

하지만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사람에 대한 안전성이나 생태계에 미칠 영향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며 반대해 시행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번에도 환경단체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는 올해 우기가 길어지면서 모기가 살기 좋은 환경이 형성돼 덴기열 발병도 크게 늘었다.

지난 1분기 기준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약 4만 3200명의 덴기열 환자가 발생했고, 404명이 사망했다.

/연합뉴스



차남 부부와 대화하는 바이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에서 두번째)이 11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뉴캐슬 주방위군 기지에서 차남인 헌터 바이든 부부와 대화하고 있다. 이날 헌터 바이든은 델라웨어주 윌밍턴 연방법원에서 불법 총기 소유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았다. /연합뉴스

포경 중지 요구에도...日 '멸종위기' 참고래 포획 허용

일본 정부가 일부 국가와 환경단체의 포경 중지 요구에도 멸종 위기 동물인 참고래 포획을 허용하기로 했다.

1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수산청은 전날 상업 포경 대상에 참고래를 추가하고 올해 포획할 참고래 개체 수를 최대 59마리로 정했다.

상업 포경 대상은 기존에 밍크고래, 브라이드고래, 브리고래 등 3종이었는데, 참고래가 추가되면서 4종으로 늘어나게 됐다.

일본이 2019년 상업 포경을 재개한 이후 포경 대상 종을 확대한 것은 처음이다.

수산청은 조사를 통해 북태평양에 서식하는 참고래 자원량이 풍부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점을 상업 포경 확대 이유로 제시했다.

아울러 수산정책심의회 분과 모임에서는 포경에 반대하는 국가의 반발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나왔으나, 수산청이 "과학적 근거에 기초해 일본 입장을 전달해 가겠다"고 설명했다. 교도통신은 전했다.

하지만 대왕고래 다음으로 큰 참고래는 세계자연보존연맹(IUCN)이 정한 '야생에서 절멸할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큰 동물'에 포함돼 있다.

/연합뉴스

"푸공주, 오랜만이야. 반가워"

푸바오 중국 도착 2개월여만에 대중에게 공개

지난 4월 중국에 반환된 자이언트판다 '푸바오' <사진>가 2개월여 만인 12일 쓰촨성 판다기지에서 대중에게 공개됐다.

푸바오는 이날 오전 9시39분(현지시간) 쓰촨성 워룽중화자이언트판다원(卧龙中华大熊猫苑 神树坪基地)의 방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실내 생활 공간에 대기하던 푸바오는 원형 창살이 달린 철문이 열리자 야외 방사장으로 걸어 나왔다.

애초 센터측이 예상한 시간보다 9분가량 늦게 방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나오자마자 입구 옆 벽을 짚고 기지개를 켜 푸바오는 다시 실내로 들어가려는 듯한 자세를 취했다가 곧바로 방사장 풀밭으로 걸어 나왔다.

약 5분가량 어슬렁거리며 산책을 한 푸바오는 나무 탁자위에 준비해 둔 먹이통으로 다가가 첫 먹이로 당근을 빼 들었다.

그러다가 이내 대나무를 뽑아 들고 바위모양의 조형물 위로 쓴살같이 올라갔다.

양손에 대나무를 들고 기대고 앉아 맛있게 대나무를 먹어 치운 푸바오는 다시 먹이통이 있는 탁자로 내려가 계속 대나무를 즐기기 위해 먹어치웠다.

야외로 나온 지 약 30분이 지나서는 아예 먹이통을 다리 사이에 끼고 본격적인 '먹방'에 여념이



없을 모습이었다. 예의 한국에서의 그 모습을 연상케 했다.

식사를 마친 뒤에는 탁자 위에 벌렁 누워 휴식을 취했고 별떡 일어나 엉덩이를 흔들기도 했다.

탁자에서 내려온 푸바오는 조그만 인공 연못으로 가서 잠시 물을 마셨고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인양 풀밭을 어슬렁거리며 산책하는 모습도 확인됐다.

이런 장면들은 중국판다보호연구센터의 웨이보(微博·중국판 엑스)를 통해 처음부터 중국 전역에 생중계됐다.

센터 측은 두 명의 앵커와 사육사와 대담 프로그램을 통해 푸바오가 먹이로 무엇을 좋아하는지, 건강 상태는 어떤지 등을 소개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수목장

삶의 마지막, 한 그루 나무가 될 당신을 기억합니다.

광주 친환경 수목장 · 가족장 24시간 연중무휴 상담문의: 062-449-4446